

BNK경남은행, 지역 문화·예술과 '아름다운 동행'



1 BNK경남은행갤러리 제2회 한·일 우호전 2 유튜브 콘텐츠 '픽스토리(PIC-STORY)' 장면 3 BNK경남은행 여성 백일장 및 어린이 사생 실기 대회
4 BNK경남은행과 함께하는 오페라 관람 행사 5 2021 경남메세나대회에서 인사말 하는 최홍영 은행장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국민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지역 문화·예술계는 더 힘든 시기를 보냈다. 공연, 전시 등 각종 예술 행사는 축소되거나 취소됐고 관람객 수도 크게 줄었다.

BNK경남은행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 문화·예술을 지원했다. 은행은 경남메세나협회 회장사로 2007년 협회 출범을 주도하며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역 내 유일한 오페라단인 경남오페라단을 20년째 후원 중이다. 합창단, 국악관현악단,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공연 활동에도 지원한다.

예술 공연 외에도 마산문화예술센터 '시민극장' 조성 사업이나 한국가톨릭미술협회가 개최한 협회전 전시, 진주 논개제 개최 등 지역 내 대표 문화·예술 사업에 후원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역 예술인과 단체 후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문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매년 봄에 실시하고 있는 'BNK경남은행 백일장 및 미술대회'는 올해로 31회를 맞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에도 1만 점이 넘는 작품이 출품돼 성황을 이뤘다.

본점 1층에 운영 중인 'BNK경남은행갤러리'는 지역 예술인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무료 대관한다. 지난해 리모델링해 7월부터 연말까지 9차례 전시회를 열었다. 올해 14차례 전시회가 예정돼 있으며 현재 4회차 전시가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작가들의 인터뷰와 작품 소개를 담은 유튜브 콘텐츠 '픽스토리'(Pic-Story)를 제작해 홍보를 지원한다. 쉽게 보기 힘든 작가들의 작품 활동 모습, 작품 관람 방법 등 유용한 정보와 함께 지역 작가들을 알리는 콘텐츠를 BNK경남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한다.

어려운 환경의 예체능 분야 청소년 인재를 후원하는 '청소년 드림 스타' 사업도 시행 중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0여 명의 지역 꿈나무들을 발굴·지원한다. 방송사 트로트 오디션에서 활약하며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받았던 남승민도 드림 스타 중 한 명이다.

경남은행은 이런 문화예술 후원 성과를 인정받아 2020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 인증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최홍영 은행장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저변 확대는 문화·예술 관계자뿐 아니라 지역과 지역민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지역 대표 은행이자 경남메세나협회 회장사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행복한 경남을 바라는 경남은행의 마음

당신이 웃으면 경남도 웃습니다
경남의 행복 중심에 언제나 경남은행이 있습니다

